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음 윤5월 19일) 제18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는 11일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부영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나서

공공주택 특별법 조속 개정해야

전주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위한 연대회의 열어
김승수 시장 "임대사업자, 서민 고통도 생각해야"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주시는 11일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12개 지자체 등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기로 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을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인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

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주시는 향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22개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 장관 면담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영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70여 시장·군수·구청장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도 김승수 시장의 제안에 따라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승수 시장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은 매년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더불어 서민들의 고통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시가 주도해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재방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매일 INDEX

3면 - '주택임대차 분쟁 대책 절실'

4면 -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 현판식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군산 전대병원 예정 건립 촉구"

최인정 의원, "재조사 연구 용역 발주는 '도민 모욕'"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재조사 용역 발주는 "도민 모욕"이라며, 도는 재검토용역 발주와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동안 관련 사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과연 전북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최인정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정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 재검토 용역 소식에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허탈해 했다"면서 "이미 2012년 전북대병원 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 경제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아 군산시민을 모욕하고 나아가 도민들까지 무시했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최인정 의원은 "이사장과 도 행

정을 책임지는 이사 등 여러명이 빠진 반쪽짜리 이사회에서 정상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던 내용을 의결해 타당성 재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만의 왕좌에서 도민을 모욕했다"고 울부짖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도는 재검토용역 발주와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동안 관련 사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과연 전북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최인정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정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 재검토 용역 소식에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허탈해 했다"면서 "이미 2012년 전북대병원 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 경제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아 군산시민을 모욕하고 나아가 도민들까지 무시했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최인정 의원은 "이사장과 도 행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폭 증액해야"

이상현 의원 "턱없이 부족"



도의회 이상현 의원이 11일 제34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한 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수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전라북도가

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만원을 개별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이는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공약으로 일정 부분 증액이 된 것인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호와 예우의 측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도지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인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복된 세태도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수당 대폭 증액과 같은 실질적인 보훈에 적극 나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명품도시 정읍, 날개를 달다!

연지아트홀

Yeonji Art Hall

개관식 및 기념공연

개관식 2017. 7. 21(금) 18:30 연지아트홀 (정읍시 중앙로 73)

주최/주관 정읍시

<p>개관 공연</p> <p>7. 21(금) 19:20 아르스 오케스트라 협연</p> <p>7. 23(일) 19:00 라스 앙상블 연주회</p> <p>7. 27(목) 19:00 시립합창단</p>	<p>7. 21(금) 19:20 아르스 오케스트라 협연</p> <p>7. 22(토) 19:00 이미연 피아노 독주회</p> <p>7. 26(수) 19:00 창작연극 순정이 블루스</p> <p>7. 29(토) 15:00 / 17:00 어린이 뮤지컬 년 특별하나다</p>	<p>7. 21(금) 19:20 아르스 오케스트라 협연</p> <p>7. 22(토) 19:00 이미연 피아노 독주회</p> <p>7. 26(수) 19:00 창작연극 순정이 블루스</p> <p>7. 29(토) 15:00 / 17:00 어린이 뮤지컬 년 특별하나다</p>
---	---	---

• 관람료 : 무료
• 관람예약 - 7. 21(금)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 가능
- 7. 22(토) ~ 7.29(토) 티켓링크 사전관람예약 www.ticketlink.co.kr (1588-7890)
• 예약기간 : 2017. 7. 13-7.28 • 문의 : 정읍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4)

기획전시 7. 21(금) ~ 29(토) 10:00 공예작품전시